

11월 18일 월요일 / 몰디브 (18위)

인기 있는 관광지인 몰디브는 모든 국민이 100% 무슬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몰디브 시민이 되는 것은 무슬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슬람을 떠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비밀로 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라도 서로의 신앙을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경우 샤리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며 국가 혜택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전 세계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과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1월 19일 화요일 / 중국 (19위)

중국의 기독교인은 억압적인 법률과 공산주의 당국의 감시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충성과 이념을 바탕으로 당 노선을 따르도록 강요 받고, 등록되지 않은 가정 교회는 감시 당하며 폐쇄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자신의 신앙을 추구하거나 표현하는 기독교인은 큰 위협에 처하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교와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은 신앙을 포기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신자들이 박해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믿음과 용기를 얻도록 기도합니다.

11월 20일 수요일 / 부르키나파소 (20위)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는 이슬람 무장 단체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난민 위기를 겪고 있으며, 난민 중에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위로 받기를 기도합니다. 난민이 된 기독교인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급자임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픈도어 파트너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박해 받는 신자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1월 21일 목요일 / 라오스 (21위)

공산주의 당국에 의해 많은 가정교회가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감시를 받는 기독교인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역사회는 개종자들을 '미친 영혼'을 지닌 반역자로 간주하며 그들은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지역사회에서 쫓겨난 신자를 위로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1월 22일 금요일 / 쿠바 (22위)

공산당을 위협하는 것은 모두 탄압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도 포함됩니다. 사회의 불의와 정치적 부패에 반대하거나 정권을 비판하는 교회 지도자와 신자는 괴롭힘, 비방을 당하며 심지어 수감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등록해야 하는데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등록된 사람들은 보안요원

의 감시를 포함하여 철저한 조사를 받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강건하고 보호받기를 기도합니다.

11월 23일 토요일 / 모리타니 (23위)

거의 모든 사람이 무슬림이기에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개종자는 법적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데 몇 년간 해당 사례는 없지만 위협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자는 가족에게 쫓겨나거나, 일 자리를 잃거나, 심지어 강제로 나라를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종한 신자가 인내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11월 24일 일요일 / 모로코 (24위)

무슬림이 다수인 모로코에서 개종자는 가족, 지역사회, 정부의 적으로 간주됩니다. '무슬림의 신앙을 흔드는 것'은 불법이어서 전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부의 적대감은 '기독교가 왕의 권위 즉, 왕이 이슬람 선지자의 후손이라는 권위에 위협을 준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진리와 사랑을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로코인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1월 25일 월요일 / 우즈베키스탄 (25위)

정부는 일부 신자들을 '극단주의자'와 정부를 파괴하는 스파이로 간주합니다. 교회는 경찰의 급습, 위협, 체포를 당할 수 있고 벌금 부과를 받기 쉽습니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침례교, 복음주의 및 오순절 단체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편,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신앙에 대한 극심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습격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갖고 계속 모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월 26일 화요일 / 방글라데시 (26위)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은 가장 심각한 제한, 차별, 그리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종종 자신의 공동체를 배신했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공격의 위험 때문에 작은 가정교회로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같은 역사적인 교회조차도 점점 더 살해 위협을 받고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공격받은 기독교인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내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월 27일 수요일 / 니제르 (27위)

지난해 군사 쿠데타 이후 이슬람 무장세력은 교회와 학교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장세력이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잠재적인 폭력이나 신체적 공격의 위험 속에서 교회 예배가 진행됩니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신자는 새로운 신앙을 포기하라는 가족의 압력에 직면합니다. 신자들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담대하기를 기도합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극단주의 세력의 영향력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11월 28일 목요일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8위)

2013년부터 지속적인 분쟁을 겪어 왔습니다. 폭력을 비난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위협을 받았고 교회 건물은 공격당했습니다. 분쟁으로 인해 집과 일 자리를 잃고 현재 수용소에 살고 있는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의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월 29일 금요일 / 투르크메니스탄 (29위)

전체주의 정부는 감시를 위해 경찰, 비밀기관, 지역 무슬림 지도자 등 대규모 국가 요원을 활용합니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은 정부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지역 사회로부터 박해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감시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정부가 기독교인을 위협이 아닌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기를 기도합니다.

11월 30일 토요일 / 니카라과 (30위)

오르테가 대통령은 계속해서 기독교인을 정부의 적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법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봅니다. 그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체포되며 교회는 혹독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회를 침묵시키고 교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려고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지도자의 영향력이 더욱 커져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박해 받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는 귀한 분들에게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기도월력의 기도제목들은 한국오픈도어 카카오톡채널에서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월력은 홈페이지 요청하기에서 월간 『오픈도어』OpenDoors 신청 또는 한국오픈도어로 전화하시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등록번호-중앙, 라00042 부록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271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27-



Open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국제 기도의 날 IDOP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WWL) 데이터에 의하면, 3억 6천만 명(전세계 기독교인 7 명 중 1명에 해당)이 넘는 기독교인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높은 강도의 박해와 차별을 당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월드와치리스트에 올라온 모든 국가의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높은 순위의 국가에서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매일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압박, 차별, 잔혹함 그리고 충격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기독교인이 자연재해,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강한 사회문화적 규범과 같은 이유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WWL: 오픈도어에서 기독교 신앙을 공언하고 실천하기 가장 힘든 국가들의 순위를 평가해 발표하는 연간 보고

* 나라 옆의 순위는 WWL 순위입니다.

11월 1일 금요일 / 북한 (1위)

기독교인으로 밝혀지면 노동 수용소로 이송되거나 현장에서 살해될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전체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예배를 위한 모임은 매우 위험하며 최대한 비밀리에 이뤄져야 합니다. 성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수감된 신자들을 지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월 2일 토요일 / 소말리아 (2위)

기독교인은 무장세력 알샤바브의 살해 대상 곧 '주요 표적'입니다. 그들은 소말리아에서 모든 기독교인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이슬람을 떠나는 것은 소말리아 문화와 부족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자들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괴롭힘과 학대, 심지어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소말리아의 교회 생활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립된 신자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안전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1월 3일 일요일 / 리비아 (3위)

리비아에서는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를 따릅니다.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가장 극심한 폭력을 겪게 됩니다. 집에

간히고, 공격당하고, 납치되고, 성폭력을 당하거나 살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종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리비아 신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교회를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월 4일 월요일 / 에리트레아 (4위)

에리트리아는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로 인해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격히 감시되는 세 개의 기독교 종파(에리트레아 정교회, 로마 가톨릭, 루터교)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복음주의나 오순절파에 속한 신자들은 누구나 지속적인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약 1,000명의 에리트레아 기독교인이 어떠한 범죄 혐의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수감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해 위로 받기를 기도합니다.

11월 5일 화요일 / 예멘 (5위)

이슬람 성향이 강하고 보수적이며 부족 중심적인 예멘에서 이슬람교를 비난하는 부족은 사형이나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개종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자신의 신앙을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신자는 이혼, 자녀 양육권 상실, 체포, 심문, 심지어 '명예살인'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이 성숙하여 어려움가운 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월 6일 수요일 / 나이지리아 (6위)

기독교인, 특히 무슬림이 다수인 북부 지역의 기독교인은 '반딧'과 같은 무장 세력에 의해 지속적인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 세계 다른 곳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신자가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집에서 쫓겨나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치유하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월 7일 목요일 / 파키스탄 (7위)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종종 소수민들을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됩니다. 근거 없는 비난마저 매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납치되고 학대당하고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기독교 소녀와 여성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살해되기도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의 직업은 하층 직업으로 제한하는 차별적 제도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교회는 상대적으로 예배가 자유롭지만,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폭탄 공격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신성모독의 거짓 주장으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월 8일 금요일 / 수단 (8위)

2023년 4월 내전이 발발한 이후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급증했습니다. 최소 165개 교회가 강제 폐쇄되고 일부 교회는 파괴되었습니다. 최근 급진 단체에 의해 기독교인 남성이 납치되고 살해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이번 분쟁으로 인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

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폭력이 멈추며 안정이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내전으로 난민이 된 신자들에게 필요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며, 공동체가 잘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11월 9일 토요일 / 이란 (9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불법이며, 개종한 사람은 누구나 체포되어 수감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종을 이슬람과 이슬람 정부를 약하게 하려는 서구의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구금된 사람들은 감옥에서 학대와 고문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은 석방되어 감시를 받으며 두 번째 체포는 장기 징역형을 의미합니다. 개종자들은 상속 재산을 잃거나 무슬림과 강제 결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란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도록 기도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음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월 10일 일요일 / 아프가니스탄 (10위)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살해되거나 고문을 당하며, 동료 신자들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도록 위협을 받습니다.탈레반이 장악한 이후 많은 신자가 도망쳐 이웃 국가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머물기를 선택했거나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박해받는 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월 11일 월요일 / 인도 (11위)

기독교인은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에 점점 더 노출되고 있습니다.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은 '인도인은 힌두교도여야 하며 다른 신앙은 인도에서 환영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주에서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고협하는 개종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극심한 압력을 받습니다. 폭력적인 공격 영상은 온라인에 널리 유포됩니다.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고, 기독교 신자들과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1월 12일 화요일 / 시리아 (12위)

최근 몇 년간 시리아의 분쟁이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슬람 무장세력이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오래된 교회의 지도자들이 공격이나 납치를 당합니다. 교회 건물은 철거되었고 기독교인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많은 신자가 나라를 떠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개종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1월 13일 수요일 / 사우디아라비아 (13위)

소수의 사우디 기독교인들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과 신앙을 공유하면서 더욱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율법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개종이 발각되면 남성과 소년은 집에서 쫓겨나고 여성과 소녀는 집에 감금되고 학대당합니다. 개종자는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살해될 수 있습니다. 비밀신자들이 서로 은밀하게 만나 교제하며, 복음의 문이 열려 지기를 기도합니다.

11월 14일 목요일 / 말리 (14위)

지하디스트 공격은 계속해서 소수의 기독교인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친척과 공동체로부터 폭력과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2023년 6월, 국가를 세속 국가로 유지하는 헌법 초안이 승인되어 소수 기독교인이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위로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11월 15일 금요일 / 알제리 (15위)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가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기소 위협을 받는 등 국가의 압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정과 사업체는 더 많은 습격을 받았습니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은 누구나 극심한 박해와 반대를 경험하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폐쇄된 교회와 지도자들이 용기와 지혜 얻기를 기도합니다. '무슬림의 신앙을 흔들었다'는 거짓 기소를 당한 모든 기독교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11월 16일 토요일 / 이라크 (16위)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은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극심한 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협을 받고, 학대를 당하고, 가족을 잃거나, 강제 결혼을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 국가'(IS)의 공격과 박해로부터 온 트라우마를 치유하면서 계속해서 재건하고 복원하고 있습니다. 북부 이라크의 재건이 계속되고 있음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1월 17일 일요일 / 미얀마 (17위)

2021년 2월 무장 단체들이 쿠데타로 장악한 이후, 기독교인은 더 심한 폭력을 당하고 더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살해되거나 집에서 쫓겨났고, 교회는 무차별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개종자는 불교, 이슬람교, 가족 및 부족 공동체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미얀마 신자들을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얀마 교회를 보호하시고 박해 속에서도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